



배포 일시	2023. 1. 11.(수)			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천우 (044-201-4100)
	민간임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순영 (044-201-4104)
주택도시 보증공사	기금사업운영단	책임자	사무관	김원섭 (044-201-4109)
			단 장	최종원 (051-998-2320)
		팀 장	박영훈 (051-998-2301)	
			팀 장	배재영 (02-3771-6555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

- 입주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하자 처리 지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(충주 호암)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(1.12~)한다고 밝혔다.
-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(70%~95%이하)로 10년간 안정적(5% 임대료 상승제한 등)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 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.
-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, 하자분쟁조정위원회,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‘하자 점검단’을 구성하고 1.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특히,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(’22.10월~’23.1월)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(약 5천여 세대)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.

- 아울러,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‘하자점검단’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“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,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